

제38회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미래세대의 미래는 있는가?

Do future generations have the future?



2019년 9월 18일(수) ~ 20일(금)

경희대학교

취지

미래 세대의 미래는 있는가? 기후위기와 진실의 정치

파국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실존적 위협은 기후위기”라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 세계 기후학자들이 천명했듯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면 세계적으로 심각한 재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도 이상 상승하면 ‘여섯 번째 지구생명의 대멸종’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경고는 벌써부터 있었다. 50년 전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에서 인류가 지구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 성장을 계속 추진한다면, 21세기에 생태적, 경제적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그후 전개된 상황은 악화일로다. 인류는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하고 무절제한 욕망으로 살다보니 오늘날 엄청난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바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류는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 사회경제가 변하면서 기후변화가 일어났고 이것이 다시 사회경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가 ‘성장 패러다임’을 ‘지속 패러다임’으로 교체하지 않는다면, 인류문명의 존속은 더 이상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미래세대 마저 나서고 있다.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며, 지구 차원의 근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PBF 2019는 이런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세계 지성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대응하고,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PBF 2019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난제를 풀어나갈 실천적 지혜를 모색하려고 한다.



세계평화의 날 제정 배경

세계평화의 날과 해는 1981년 UN이 제정하면서 정례화되었다.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IAUP) 제6차 총회에서 경희대가 UN에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IAUP는 이 같은 내용의 코스타리카 결의문을 채택해 UN에 전달했고, UN은 그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UN 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했다.

당시 UN 총회 결의문(Resolution 36/67)에는 세계평화의 날은 “모든 국가와 시민이 평화의 이상(理想)을 기념하고, 고양시키고자” 제정되었으며, “모든 UN 회원국, 산하 기관과 기구, 지역기구, NGO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UN과의 협력 하에 특히 교육적 수단을 통해 세계평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권유한다고 쓰여 있다. UN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했다.

냉전체제의 완화가 인류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IAUP의 생각은 시의적절했다. 세계평화의 날과 해가 제안되던 무렵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던 동·서 양 진영은 세계평화의 해가 공표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1986년 1월 1일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상대 국민을 향해 신년 평화의 메시지(New Year's Messages of President Reagan and General Secretary Gorbachev, January 1, 1986)를 전달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양국이 추진해오던 군축회담도 진행되면서 인류는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핵무기 감축안이 마련되고 지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냉전체제의 긴장이 완화되었다.



주 제 미래세대의 미래는 있는가?
일 시 2019년 9월 18일(수) ~ 20일(금)

| | |
|---|---|
| <p>Peace BAR Forum 9월 18일(수) 15:00 ~ 17:00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로비</p> | <p>주제 Save Earth, Make Future 패널 피터 와담스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이안 던롭 로마클럽 회원, 前 Australian Coal Association 의장 미래세대 대표(학생 기획단)</p> |
| <p>세계평화의 날 기념 평화음악회 9월 18일(수) 19:30 ~ 21:30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p> | <p>세계 평화의 날 기념 평화음악회</p> |
| <p>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9월 19일(목) 10:30 ~ 11:30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로비</p> | <p>개회</p> <hr/> <p>세계평화의 날 개관</p> <hr/> <p>축사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영상) 이리나 보코바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장 피에르 라파랭 前 프랑스 국무총리</p> <hr/> <p>미래세대의 전언(영상)</p> <hr/> <p>기념사 조인원 경희대학교 이사장</p> <hr/> <p>축하공연 경희대학교 음악대학</p> |

| | |
|---|--|
| <p>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국제컨퍼런스</p> <p>9월 19일(목) 13:30 ~ 16:00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로비</p> | <p>주제 미래세대의 미래는 있는가? : 기후위기와 진실의 정치</p> <p>좌장 이리나 보코바 경희대학교 미원석좌교수</p> <p>패널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p> <p>장 피에르 라파랭 前 프랑스 국무총리</p> <p>피터 와담스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p> <p>이안 던롭 로마클럽 회원, 前 Australian Coal Association 의장</p> <p>조인원 경희대학교 이사장</p> |
| <p>세계평화의 날 기념 서울평화포럼</p> <p>9월 20일(금) 09:00 ~ 12:00 서울 프레스센터</p> | <p>주제 한반도 평화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p> <p>개회</p> <p>기조연설 박원순 서울시장</p> <p>이미경 KOICA 이사장</p> <p>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p> <p>박영국 경희대학교 총장 직무대행</p> <p>패널토론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 / 국제개발협력</p> <p>2018 평창기념 재단</p> <p>한반도생명평화국제연대</p> <p>UNDP</p> |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청대상자 약력



반기문

-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
-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 석좌교수
- 제8대 UN 사무총장
-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



이리나 보코바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명예대학장
- 前 유엔 글로벌교육협력구상 GEFI 사무국장
- 前 유네스코 사무총장
- 前 주 프랑스 불가리아대사관 대사
- 前 불가리아 의회 의원



장 피에르 라파랭

- 프랑스 정치인
- 프랑스 국무총리 (2002~2005)
- 연금, 지방분권, 건강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을 주도
- CEIBS의 Global Leadership 교수 겸 Charles de Gaulle 의장
- Fondation bu la Proposive et l'innovation 회장
- 2018년 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의해 중국 정부 특별대표로 임명



피터 와담스

- 케임브리지대학교 응용수학 및 이론물리학과 해양물리학 교수
- IAPSO 회장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hysical Science and Oceans Commission on Sea Ice)
- IPAB 코디네이터 (The International Programme for Antarctic Buoys)



이안 던롭

- 로마클럽 회원
- 부의장, ASPO Australia (The Australi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eak Oil and Gas)
- 前 Australian Coal Association 의장
- 회원, The Centre for Policy Development
- 회원, Mikhail Gorbachev's Climate Change Task Force
- 前 이사, Royal Dutch Shell



Peace BAR Festival 연혁: 한반도에서 몸, 문명, 우주까지

경희대학교는 1981년 경희의 제안으로 제36차 UN총회에서 제정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1982년부터 매년 9월 세계평화의 날에 즈음해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해왔습니다.

| | | |
|------------------|------------------|-------------------------------------|
| 1982~1990 | 1982 | 현대사회의 위기와 국제평화 |
| | 1983 | 세계평화: 그것은 가능한가 |
| | 1984 | UN을 통한 세계평화 |
| | 1985 | UN: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 | 1986 | 국제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 |
| | 1987 |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1980년대 후반의 한반도 |
| | 1988 | 동북아시아와 21세기의 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 |
| | 1989 | 동서 갈등을 넘어선 평화: 1990년대 동북아의 안위와 세계평화 |
| | 1990 | 동서 관계의 변화와 평화로운 신국제질서의 모색 |
| | 1991~2000 | 1991 |
| 1992 | |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신국제질서 |
| 1993 | | 동북아시아의 평화: 지역협력을 향하여 |
| 1994 | | 도덕과 인간성 회복 |
| 1995 | | 관용, 도덕과 인간성 회복 |
| 1996 | | 21세기, 세계공동체를 향한 평화전략과 UN의 역할 |
| 1997 | | 21세기의 비전과 현실: 동아시아의 역할 |
| 1998 | |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의 비전: 현대문명을 넘어서 |
| 1999 | | 21세기, 평화는 가능한가 |
| 2000 | | 21세기의 글로벌 거버넌스 |
| 2001~2010 | 2001 | 문명 간 대화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
| | 2002 | Pax UN을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
| | 2003 | 네오르네상스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
| | 2004 | 평화를 위한 긴급 과제: 테러리즘의 극복 |
| | 2005 | 이념 이후의 시대: 21세기 대안문명을 말한다 |
| | 2006 | 21세기 보편의 재발견: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
| | 2007 |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 |
| | 2008 | 미래문명, 미래대학: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
| | 2009 | 경희 평화 워크숍 |
| | 2010 | 몸과 문명: 나는 몸이다 |
| 2011~2018 | 2011 | 몸과 재앙: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
| | 2012 | 인간, 정치, 문명 |
| | 2013 |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 |
| | 2014 |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 |
| | 2015 | 함께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
| | 2016 | 지구문명의 미래: 실존혁명을 향하여 |
| | 2017 | 전환의 시대: 촛불과 평화의 미래 |
| | 2018 | 전환문명 시대의 한반도: 그 가치와 철학 |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el 02-961-0114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tel 031-201-3114
광릉캠퍼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195 tel 031-570-7012

경희사이버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el 02-968-2233